

■ 특특뉴스

개인정보유출배상 가입률 1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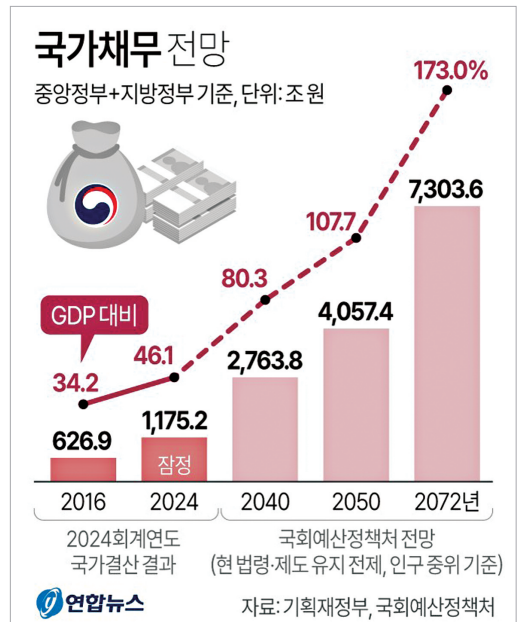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개~38만 개로 추정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 그래픽 경제



한국 GDP 대비 채무비율 46.1%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건강한 관계 속 ‘공동체 구축’ 해야 큰 힘 발휘”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 모두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국가보다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죠.”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골드클래스 본사 대강당에서 전남매일 제7기 CEO 이종수 연세대학교 부총장 경제아카데미 4강이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종수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강의에 앞서 이 총장은 박철홍 골드클래스 회장과 인연을 소개했다. 지난 2017년 이 총장이 게재한 ‘안중근가의 두 아픔’ 칼럼을 박 회장이 접하고 안중근 의사 유족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이 총장은 “‘유족 측의 귀한 마음을 이미 감사히 받았고 집은 더 필요한 분에게 드렸으면 한다’며 끝내 박 회장의 기부를 고사했다”면서 “박 회장은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별도로 연세대에 1억원을 기탁했다”고 회상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연세대 안중근 사료연구 센터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의사의 독립운동 일대기를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중요성과 연관해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사회·도덕적 토대는 사람의 모인인 공동체에서 나온다. 국가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 단위”라며 “안의사의 경우에도 인류애나 공동체, 범위를 확장하면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해 몸을 던졌기에 더 큰 존경을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골드클래스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기 전남매일 CEO 경제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된 이종수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매일 제7기 CEO경제아카데미 <4강>

이종수 연세대학교 부총장 ‘나는 어떤 이야기 일부인가’ 강의

공동체 요건 ‘신뢰·규범·네트워크’

박철홍 회장과 ‘안중근...’ 칼럼 인연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디도 국가의 독립보다 ‘모범이 되는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했듯이 위인들은 공동체에 국가 이상의 가치를 뒀다. 사회자본이론도 국가주의나 시장주의를 배격하고 공동체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구성·유지 요건으로 사회 영역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신뢰·규범·네트워

크를 선정하고 국가별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 부총장은 “이웃나라 중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작은 마을·모임 등 공동체가 주축하고 300년 이상 이어진 전통 깊은 축제가 많다”며 “결사체가 활동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 지는게 건강한 사회다. 다른건 비판하더라도 일본 내 사회성은 우리가 벤치마킹 할 값어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서 제시한 한중일 공동평화도시·연합군·공동은행 실제 모델인 ‘유럽연합(EU)’도 건강한 공동체의 표본으로 손꼽았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는 일본과 반대로 대부분 축제가 관에

서 주축한다. 식민지·전쟁·급격한 성장을 거치며 공동체가 많이 와해됐고 사회에 만연한 세대·성별·정치·노사 등 모든 갈등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건 공동체를 재건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로버트 퍼트남의 말을 빌려 공동체의 약화·헐거워진 신뢰 등 사회적 자본 하락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교수는 “공동체는 기업 같은 조직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수준의 신뢰·규범·네트워크는 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특히 광주는 한국에서도 민주화, 예술, 감성 등에서 앞서나가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동체 활성화에 광주가 앞장선다면 국가 전체에 메아리가 퍼져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고스트패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

광주 기반 혁신 스타트업 ㈜고스트패스(대표 이선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지역 기업 최초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분야 유망기업으로 선정됐다.

20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중기부 대표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고스트패스의 독자적인 온디바이스 생체인증 기술이 미래 사이버보안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스트패스는 사용자의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탈중앙화 온디바이스 인증

기술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킹이나 정보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며 글로벌 개인정보보호규제(GDPR 등)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고스트패스는 향후 3년간 총 6억 원 규모의 사업화자금을 비롯해 기술 고도화,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홍승현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NAMGU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을 드립니다!

광주 남구 고향사랑기부제 를 소개합니다!

기부대상

주소지가 남구가 아닌 국민 누구나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

기부혜택

답례품 - 기부액의 30% 지역특산품 등 제공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공제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위기브, 액티부키, 금융권 (국민,기업,신한,하나)

오프라인
NH농협은행 창구 대면접수

기부금 사용

지정기부

- 100년의 편지, 한국형 웰루서점 시간우체국
- 장애인 예술가들의 희망 선율, 함께 올려요
- 대한민국의게만 유예된 축복을 여는 기차
- 모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한발짝, 보장구 클린서비스

일반기부

- 아동복지시설 토소아동 홀로서기 지원금 지원
- 장애인 수영클럽 운영
-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지원

기부자(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답례품

남구청

취약계층 지원

통일 효도 열차

시간우체국

보장구 클린서비스

합창단 & 오케스트라

문의처 : 남구청 주민자치과 고향사랑팀 ☎ 062-607-2880 ~2882